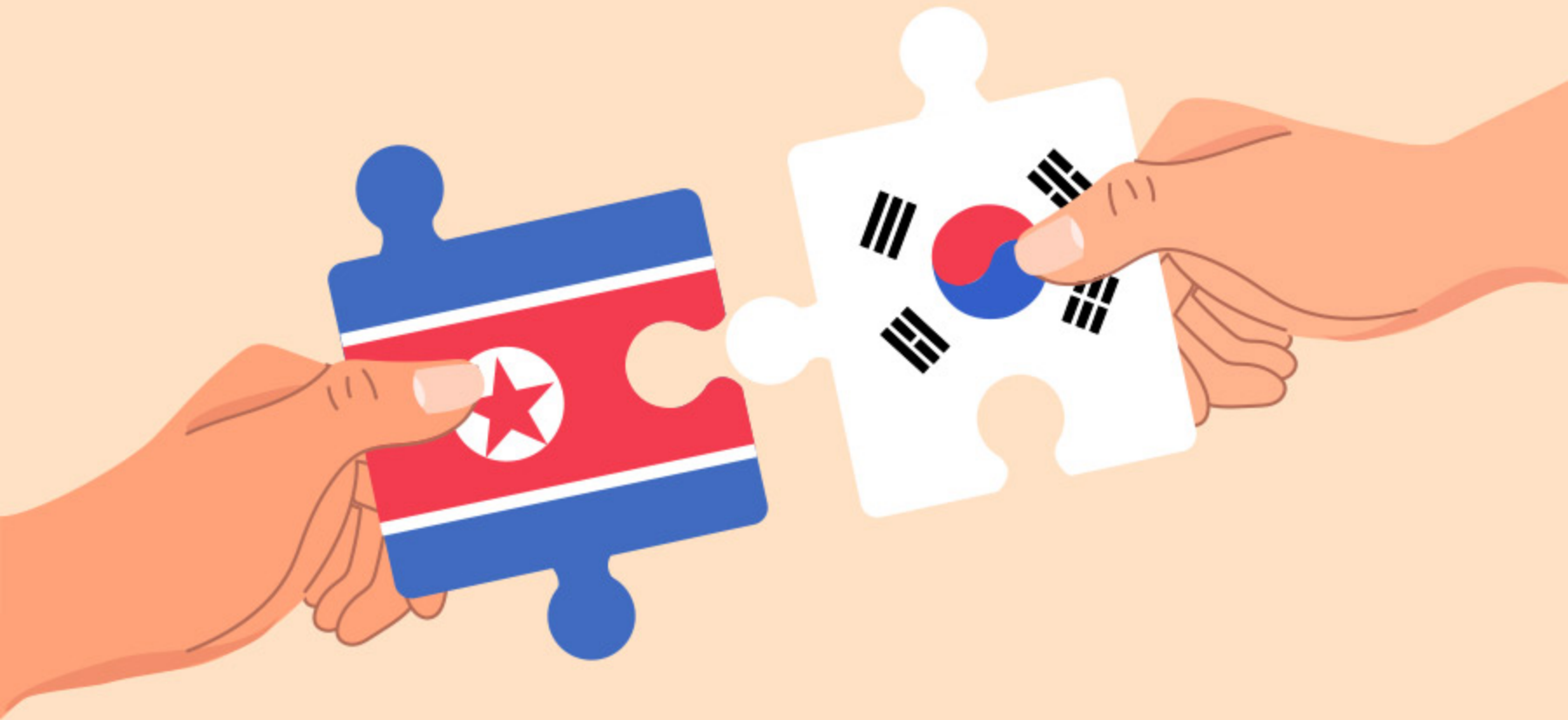


남북 청소년, 함께 수학여행 가는 날이 올까요?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
전국의 초·중·고 재학생 3,228명을 대상으로
북한·통일,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
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

먼저,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**‘북한’** 하면
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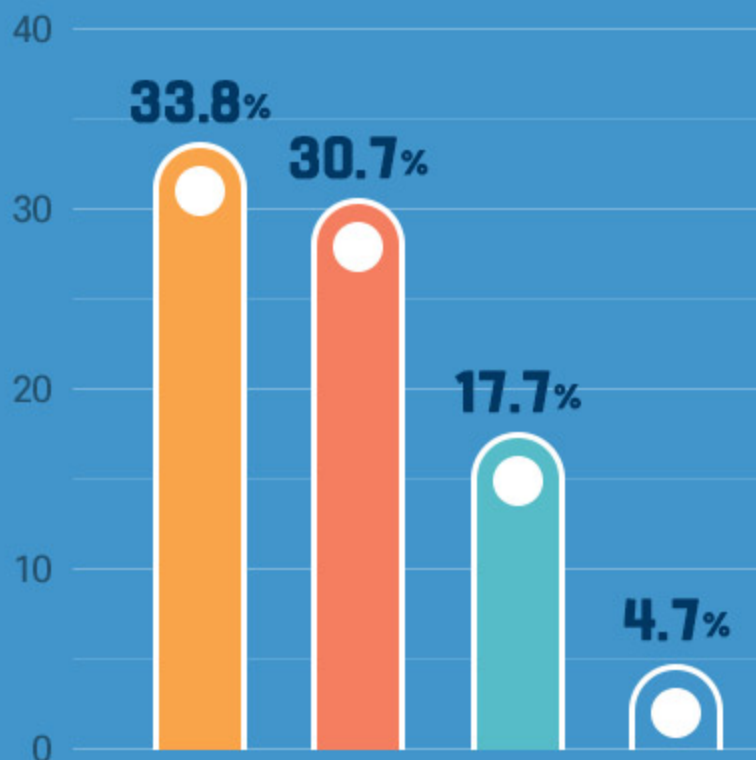
청소년들이 '북한'하면 떠올리는 생각이나 이미지에 **'통일'**이 가장 많았습니다.

그에 이어

'독재·인물', '핵·미사일 실험', '가난·빈곤·기아' 순으로 나타났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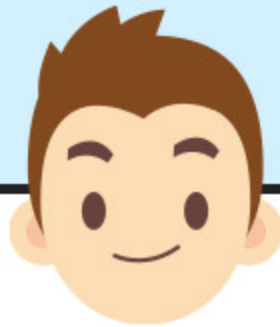


- 1위 **통일**
- 2위 **독재·인물**
- 3위 **핵·미사일 실험**
- 4위 **가난·빈곤·기아**



또 북한을 우리나라와 화합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
과반수에 가까웠지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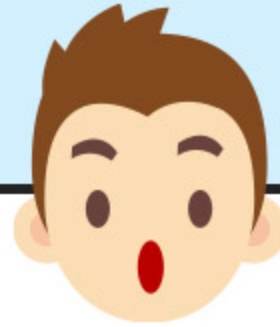
반대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또한 많았습니다.



긍정적

북한과 우리나라는
한민족이므로
화합해야 해요!

47.1%



부정적

우리나라가
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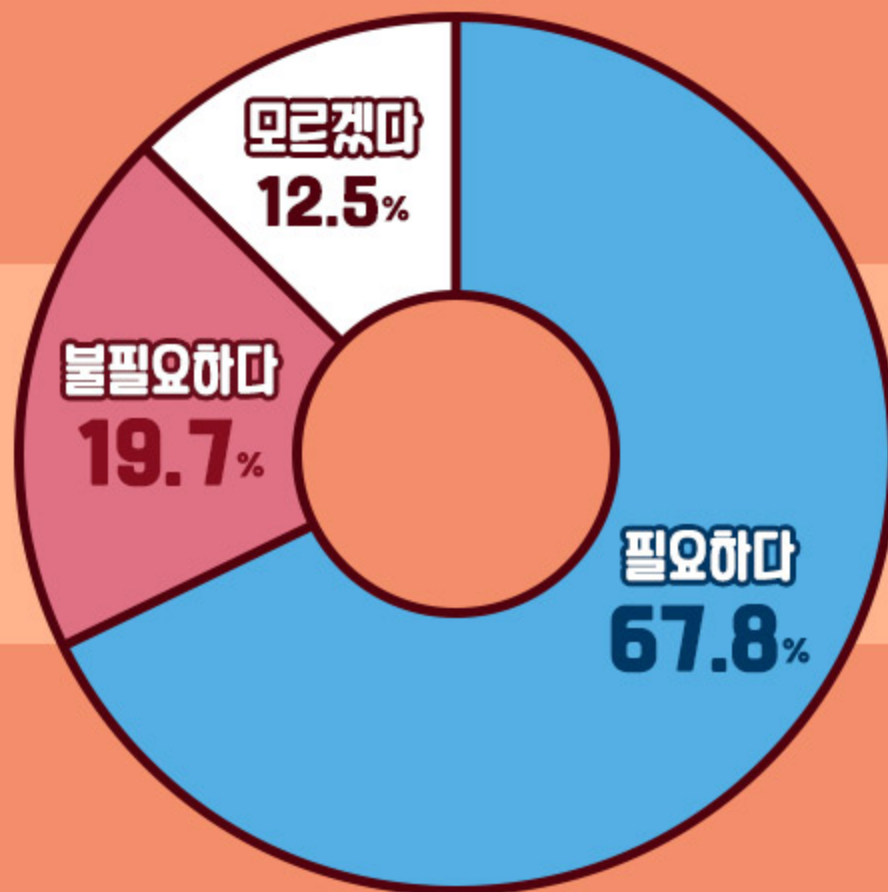
21.9%

북한은
안보를 위협할 위험성이 있어요.

10.4%

학교급별로 살펴보면, 고등학생 > 중학생 > 초등학생 순으로
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.

그렇다면, 우리나라 청소년은 남북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



응답자 절반 이상이 통일은 '필요하다'고 답했으나,
응답자의 19.7%는 '불필요하다'고 응답했습니다.
또 '모르겠다'고 답한 청소년도 12.5%에 달했죠.

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했습니다.

찬성



통일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**28.8%**

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**23.2%**

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**19.6%**

반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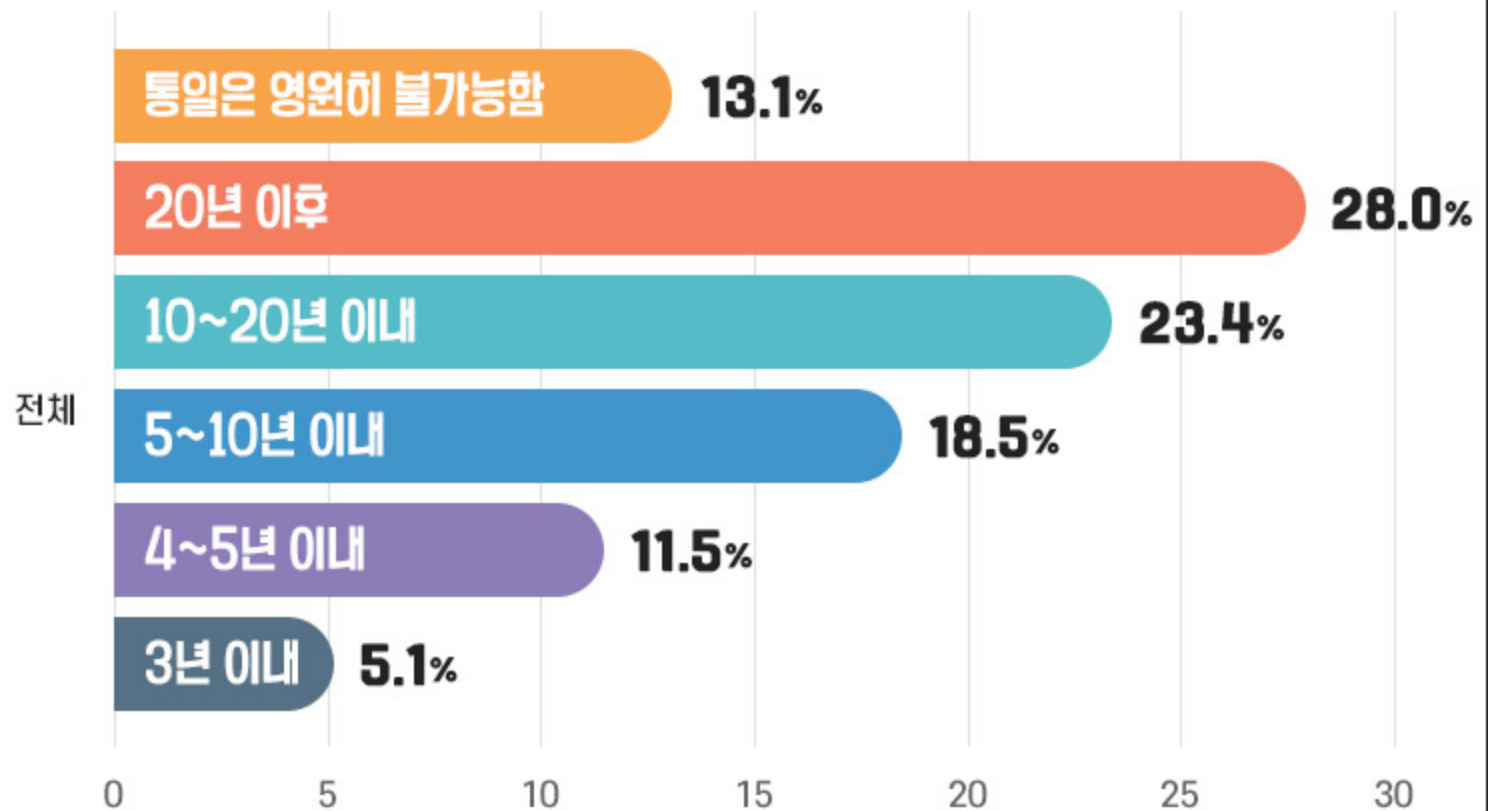
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**39.5%**

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**28.2%**

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**10.6%**

청소년들은 남북통일 가능 시기로 '20년 이후'를 가장 많이 꼽으며,
대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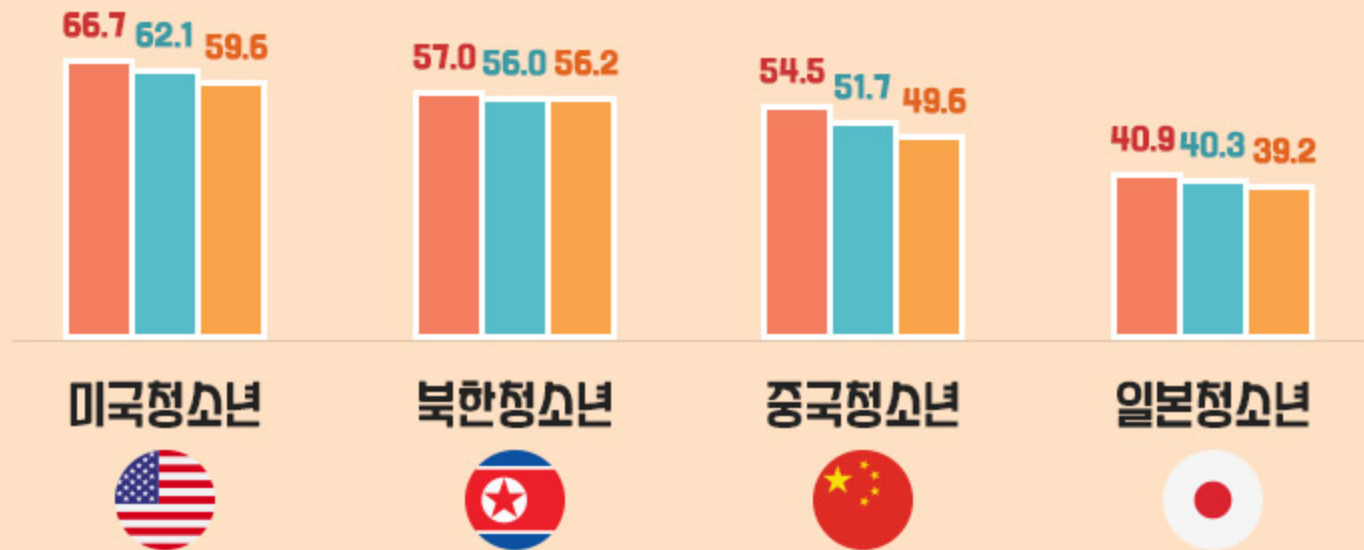
주목할 점은 초등학생들에게서 "5~10년 이내" 응답이,
고등학생들에게서는 "20년 이후"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.



이에 이어,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
중국, 일본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친근감과 관심을 보였습니다.

● 호감도 ● 친근감 ●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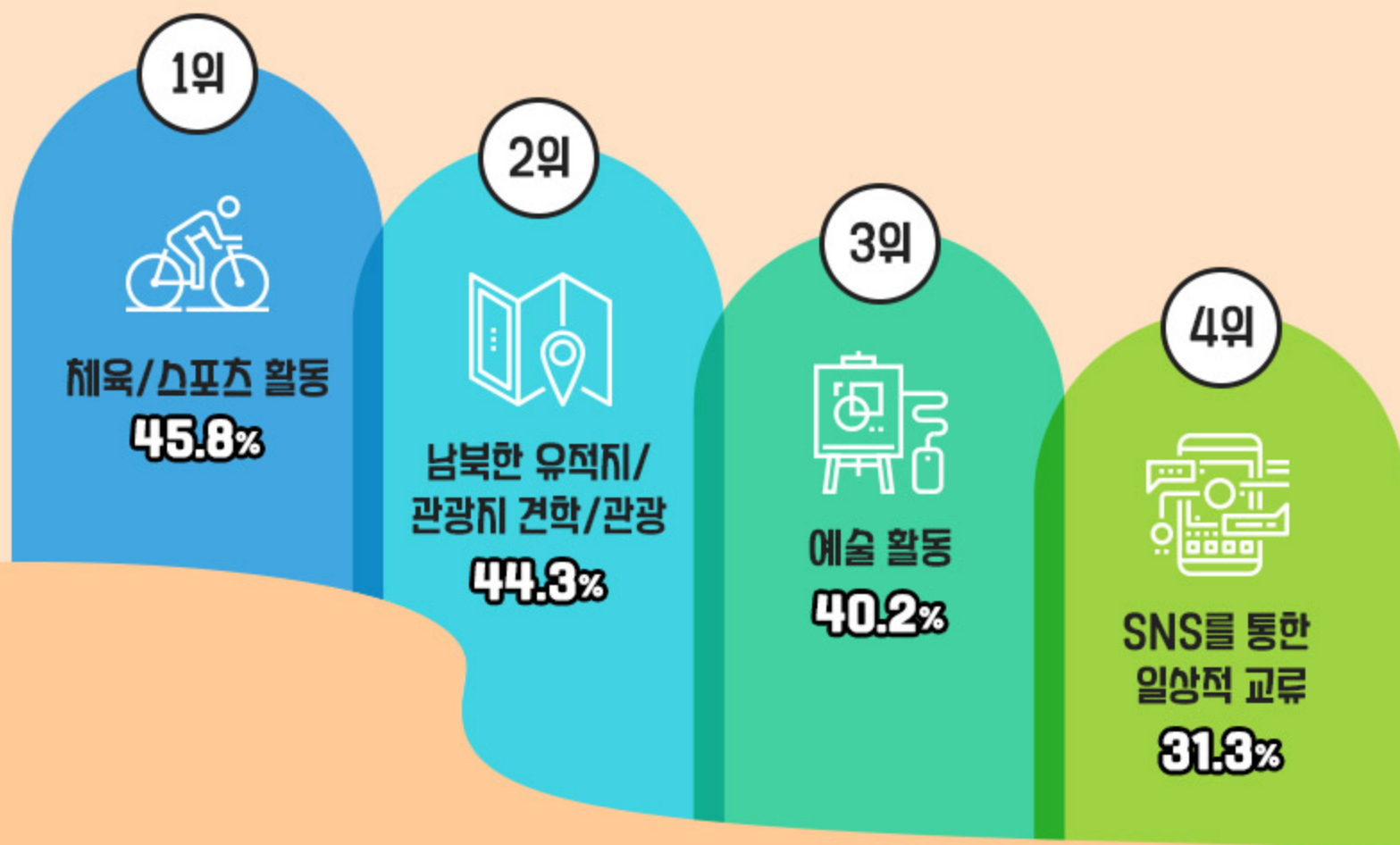
(10점 척도, 100점 만점으로 환산)



또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가
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4.2%로 월등히 높았고요.
이들 중 92%는 교류 주체 방식에 **청소년의 의견이 우선적으로
반영되어야 한다고** 의견을 밝혔습니다.

그만큼,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남북 청소년 교류에 대한
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.
만일 향후 1년 이내 청소년 교류 기회가 생긴다면
참여하겠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 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.

가장 선호하는 북한청소년과의 교류 유형은? (1+2순위)



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고등학생 > 중학생 > 초등학생 순으로
북한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지만
청소년 세 명 중 두 명꼴로 남북 통일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.

미래 한반도의 주역이 될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은
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유된 체험을 바탕으로
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
우리 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
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.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「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」

배상률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·연구위원)
이정민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·부연구위원)